

기업영업 확대 ‘본업 집중’… 소비자 권익 보호의 원년 선포

2026 카드사 생존전략

우리카드

기업영업본부 정주영 상무 선임
법인카드 성장률 반등 전략 관측

모든 경영서 ‘소비자 보호’ 최우선
내부통제·사전협의 체계 고도화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은 올해 신년사 대신 사내 경영 키워드를 제시하며 수익 안정성 확보·본질에 집중한 경쟁력 강화·지속 성장 모델 확립 등을 주문했다. 내실 경영을 중심으로 기초체력을 키운 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신년사 생략·인사 규모 최소화

우리카드는 올해 신년사를 생략했다. 지난해에는 진 사장이 신임 대표로 취임하면서 한 해 경영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다. 인사 규모도 최소화했다. 지난해 초 신규 임원은 5명이었으나 올해는 2명에 그쳤다.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우리카드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0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감소했다. 연체율 감소를 위해 대손상각비를 늘린 점이 순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대손상각비는 3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 기업영업 확대…본업 경쟁력 강화

우리카드는 대표적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2026년을 전환점의 해로 삼

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인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업영업 확대다. 우리카드는 이번 인사에서 기업영업본부에 정주영 상무대우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신년 인사에 마케팅본부, 개인영업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소비자보호본부 등을 중심으로 신규 임원을 배치한 것과는 또 다른 행보다.

일각에서는 우리카드가 법인카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법인카드 점유율이 16.5%로, KB국민카드(16.8%)의 뒤를 이어 업계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5년 점유율이 14.7%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가 법인카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우리카드 법인카드 점유율은 업계 2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

실제 우리카드는 기업고객이 항공권, 호텔 등 출장 관련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즈플레이출장 컨시어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업 고객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 발권, 일정 변경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고객센터(CS) 서비스도 제공한다.

◆ 고객중심 경영 강화

우리카드는 올해 소비자 중심 경영 기조를 분명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을 선포하고, 올해를 소비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취지다.

특히, 우리카드는 고객의 필요와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판매 원칙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사전 협의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업무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카드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수단 추가

삼성생명은 26일 기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더해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추가 도입했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보험 업무 처리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고객은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계약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모바일과 온라인 채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증 단계에서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이용 흐름 역시 매끄러워졌다.

보안성도 함께 강화됐다. 이번에 도입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 위험을 낮췄다.

한화손해보험

취준생 ‘취업캠프’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취업 준비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첫 걸음을 위한 ‘취업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 유일의 실전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 전문가·현직자·인사 담당자가 총출동한다. 캠프 참여가 실제 채용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에게는 한화손보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 분야는 ‘페멘테크(Femtech)’와 ‘사이버보험’이다. 취업캠프는 오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총주수 인보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캠퍼스에서 집중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KB손해보험은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인재니움수원에서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사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본욱 사장은 올해 새롭게 선임된 임원 및 부사장에게 새해 인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명작(名作)’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본욱 사장은 보험업계가 당면한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정교한 수익성 관리’와 ‘AI 기반 실질적 성과 창출’을 꼽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고정형 주담대 상단 7% 눈앞… 예대금리차 확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금리 0.51%p ↑
3%대로 올랐던 예대금리 하락세
5대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1.35%p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선을 바라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원금·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2~6.7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난 15일(연 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1%p포인트(p) 내렸지만 상단은 0.51%p 올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6.05%로 최고 6%를 넘어섰다. 지난 15일(연 3.76~5.87%)과 비교하면 상단이 0.18%p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채권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뉴시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 AAA) 금리는 23일 기준 3.675%로 지난 15일(3.579%)과 비교하면 0.096%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도 11월 2.81%에서 12월 2.89%로 0.08%

p 상승했다.

반면 예대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3%대까지 올랐던 예대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1년 만기) 최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1%에서 이달 2.9%로 내렸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도 2.85%에서 2.80%로 하락했다.

연초 은행채 채권금리 하락에 따라 대체 조달수단 격인 정기예금 금리도 내려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일시적인 변화라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는 성과급 지급과 기업자금 재유입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라며 현재로서는 비용을 들여 정기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속에 예대금리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1.35%p로 집계됐다. 2년전 기록한 0.74%p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수준이다.

은행권은대출금리가당분간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대출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월 아파트 입주물량 1.2만세대… 수도권·지방 모두 감소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낮은 수준
수도권 5192세대, 지방 7156세대

오는 2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대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입주물량은 1만2348세대로 집계됐다. 전월(2만1136세대)보다 9000세대 안팎으로 줄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6000세대 이상 감소했다. 월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5192세대, 지방이 7156세대 입주한다. 1월 대단지 입주가 집중됐던 수도권은 2월 들어 공급이 쉬어가는 분위기다. 지방 역시 경남,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월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 지역별로 서울은 일부 자치구에서 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작구 상도동의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70세대), 마포구 용강동의 마포하늘채더리버(69세대), 송

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44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모두 중소형 규모 단지인 만큼 이번 입주물량 공급으로 지역 전반의 공급 여건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해당 지역 내 국지적인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화성·파주·이천·수원 권선구 등 일부 지역에서 총 3853세대, 5개 단지가 입주한다. 전월 및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1103세대가, 파주 운정신도시 물향기마을10단지운정중앙역하우스디 1012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검단신도시에서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856세대가 입주한다. 2021년부터 입주가 진행된 검단신도는 지난 해 3942세대에 이어 올해 6938세대가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입주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방은 총 7156세대, 1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남2144세대 ▲충남2041세대 ▲대구1376세대 ▲대전1029세대 ▲전북298세대 ▲부산268세대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